

땀을 식히는 무늬 · 색상 · 옷감

폭염일때 정자나무 아래서 부채질하면서 즐기는 사이다의 거품이라든가 풍경소리, 흐르는 물소리, 낙수소리, 소나무 울림 등은 무더위를 날려주고, 시원함을 느끼게 해준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장소를 찾아다니며 주로 평탄하지 않은 실로 만든 서머드레스(summer dress), 티셔츠, 노슬리브(no-sleeve), 반바지, 탱크톱, 캐미솔 드레스(camisole dress) 등을 입는다. 사용되는 옷감으로는 비쳐 보이는 지지미(chijimi), 염축, 주름, 울의 짜임새가 있는 의직 등이 있으며, 이는 청량감을 더해준다.

무늬로는 조개, 물고기, 요트, 부표(buoy), 갈매기, 신호기, 파도 및 바다 등을 모티브로한 마린 무늬가 있으며, 배색에는 마린 블루와 백색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시원한 마가 주로 사용되는데, 비쳐 보이면서 흰색이고, 내추럴하며 무늬 없는 단순한 무지의 평직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소재는 찜는 듯한 더위의 여름에 정자나무 아래에서 가을을 연상하며 가을 풍경의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

우리 나라의 여름은 땀의 계절이다. 몸에서는 땀이 증기가 되어 발산되고, 동시에 땀이 흥건히 피부에 베인다. 여름철에는 얇고 다공성(porous)이 있으며, 통기성 좋은 청량감 소재로 된 옷을 입더라도 땀 냄새가 문제다. 이러한 땀 냄새가 나는 사람과 공공시설, 특히 엘리베이터 등에 함께 타고 있을 때 풍기는 냄새란 정말로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요즈음은 국제화 시대답게 외국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데, 특히 더운 지방에서 온 일부의 외국인들은 옆에 가까이 할 수조차 없는 지독한 냄새가 난다. 이럴 때 불쾌한 냄새를 없애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여 주는 것이 오드콜로뉴(eau de Cologne)나 향수다.

* 오드콜로뉴(eau de Cologne): 토일렛 워터(toilet water: 화장수)라고도 한다.

콜로뉴는 독일 켈른의 프랑스 명이며, 오드콜로뉴는 “콜로뉴의 물”이라는 뜻이다. 보통 향수보다 향분(香分)이 적고, 다소의 수분을 함유한 알코올성 방향품이므로 욕실·거실·병실 등의 살포용에서 수건 그 밖의 의류 등에도 사용하는 만능향수의 일종이다. 1709년 이탈리아 G.M.파리나가 켈른에서 이탈리아의 베르가모트유(油)·레몬유·오렌지유(이상 감귤계) 및 네롤리유(장미향계)를 주체로 한 새로운 화장수를 만들어 독일어로 “켈른의 물”이라 명명한 것이 기원이다. 이것은 그의 선조였던 P.페미니가 고안한 것을 근대화시킨 것이라 한다.

켈른의 물이란 이름은 프랑스와 영국의 신사숙녀에게 매력이 없었으므로, 그는 이름을 오드콜로뉴로 개명하였는데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 후 오드콜로뉴는 모조품에 대항하기 위하여 파리나콜로뉴(Farina cologne)라는 상표명으로 바꾸었다. 그 후 250년 동안 이 이름의 제조원이 오드콜로뉴의 원조로서 이어지고 있다. 오드콜로뉴는 남녀 공통인 필수품이 되어, 나폴레옹은 매월 60병씩을 사용하였다고 전한다. 특성은 향기가 산뜻하고 빨리 발산하는 것이다. 보통 향수와 달리 직접 피부에 부려도 얼룩이 지지 않으므로 몸에 직접 문지르거나 두발에 뿌리는 등 다양하게 사용한다.

향에는 수목 또는 꽃, 동물 등에서 채취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귤이나 수목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여 준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사용하지 않으나 여름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여성이 많다.

향수, 오드콜로뉴 및 헤어토닉 등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데, 향수에 함유되어 있는 알코올이 옷에 묻으면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염색된 폴리에스터 옷감을 사용한 블라우스 또는 드레스에 묻으면 난감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폴리에스터 섬유의 염색에는 물에 녹지 않는 분산염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알코올에는 약하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러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

에 매장에 클레임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향수라든가 오드콜로뉴, 헤어 토닉 등은 사용하기 전에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흐르는 땀은 타월(towel)로 닦는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 필수품은 타월 손수건이다. 타월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루프가 한쪽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루프를 끊으면 모방(毛房)이 된다. 이것을 컷트파일(cut pile)이라고 부르고 있다. 타월에도 컷트파일이 있다. 루프상태의 것과 컷트파일 상태의 것을 일괄하여 파일옷감이라고 부르고 있다. 파일옷감에는 파일직에 의한 직물과 위편에 의한 저지가 있다. 타월이라든가 바스로브(bathrobe)에 사용하고 있는 직물을 타월클로스(towel cloth)라든가 테리클로스(terry cloth) 등으로 부르고 있다. 저지로 만든 것은 이모(裏毛)라든가 파일편 등이라고 하고 있다. 트레이닝복의 경우는 이모이다. 여름철의 파일옷감은 루프가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컷트파일은 상쾌한 감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큰 인기가 있는 니트 벨루어(knit velour)를 떠올리면 납득이 갈 것이다. 그런데 루프는 길고 뽀뽀한 것이 고급스러움이 있어 좋다고 한다. 양질의 면사를 많이 사용한 테리클로스는 염색한 색상도 아름답다. 테리클로스는 양면에 루프를 가진 것, 한쪽은 루프이고 다른 한쪽은 컷트파일인 것 그리고 색상 무늬를 짜 넣어 나타낸 것 등이 있다.

* 타월(towel) : 얼굴이나 몸에 묻은 수분이나 땀을 닦는 데 쓰는 무명실로 보풀보풀하게 짠 직사각형의 면포제품. 수건이라고도 한다. 특성은 파일이 있으므로 흡수성과 통풍성이 좋다. 용도에 따라 목욕할 때 쓰는 규격이 큰 목욕 타월, 보통크기의 세면 타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타월 행커치프 등이 있다. 타월용으로 짠 피륙을 타월천이라 하는데, 습기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여름 이불로 쓰는 홀이불이나 파자마를 만드는 데도 쓰인다.

봉이포(鳳梨布)라 함은 파인애플 섬유로 만들어진 천이다. 원산지는 필리핀

이다. 통기성이 우수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어 상쾌한 착용감을 즐길 수 있다. 필리핀의 왕실에서도 애용된 고급소재이다. 봉이포(鳳梨布)로 만든 드레스는 파인애플 섬유로 만들기 때문에 코를 가까이하면 쥬스 같은 향기가 난다. 파인애플 섬유는 상당히 가늘기 때문에 방적공정이 곤란하였으나, 최근 실을 방출하는 기술이 확립되었다. 파인애플 섬유는 단면이 평균 0.3데니어(1g/30,000m)인 극세섬유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은 섬유의 여왕이라고 하는 견의 1/4 정도의 굵기이다. 면과 비교하면 굵기는 1/6이고 라미의 1/15이다. 그 때문에 견, 면, 마를 능가하고 소프트하며, 낭창낭창한 태를 지니고 있다. 또 파인애플 섬유는 마 등과 같이 염색섬유이기 때문에 라미에 필적할 만큼 흡수발산성이 우수하다. 또한 마만큼 주름이 생기지 않는 것도 이점이다.